

KLPGA 드림투어

총상금 5억원 규모 2개 대회 신설

올해 21개 대회 총상금 22억8000만원 역대 최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 총상금 5억원 규모의 2개 대회가 새롭게 열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LPGA 사무국에서 호반건설과 조인식을 갖고 오는 7월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호반건설이 소유하고 운영 중인 경기도 여주에 있는 스카야밸리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KLPGA 회장사이기도 하다. 김상열 회장 지난 3월 취임사에서 드림투어와 챔피언스 투어의 발전과 활성화를 강조하며 대회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드림투어는 19개 대회 총상금 12억 8000만원으로 대회별 상금 규모가 평균 7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2개 대회가 신설되면서 21개 대회 총상금 22억 8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대 드림투어 상금규모로는 최고액인 것은 물론 올 시즌 KLPGA 정규투어 가운데 총상금 5억원짜리 대회가 10개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정규투어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을 따라 쫓아다니는 투어가 허용되고, KLPGA 주관 방송사를 통해 전 라운드를 2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정규투어와 일정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드림투어와 정규투어를 병행하는 선수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규투어 입성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8월에는 챔피언스 투어인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을 4차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드림투어와 마찬가지로 여주 스카야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은 대회별 상금이 2억원이다.

만 50세 이상의 티칭 회원 이상만 참가가 가능한 골드부(총상금 5000만원)와 만 38세 이상의 티칭 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부(총상금 1억 5000만원)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열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투어로 불리는 KLPGA가 이민급 성장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7 드림투어 4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승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2, 3부 투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욱 탄탄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KLPGA 투어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 드림투어와 챔피언스 투어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뿐 아니라 KLPGA 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투어 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컨페드컵 '호날두 결승골' 포르투갈, 러시아 제압

포르투갈이 주최국 러시아를 제압하고 컨페드컵 첫 승을 올렸다.

포르투갈은 2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2017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컨페드레이션스컵 A조 2차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포르투갈(승점 4)은 이날 뉴질랜드를 2-1로 꺾은 멕시코와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 밀려 조 2위에 머물렀다. 러시아(승점 3)는 3위다.

전반 8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다. 하피엘 게레이로의 크로스를 호날두가 골문으로 세도하면서 헤딩으로 연결해 첫 골망을 흔들었다. 이날 골을 추가한 호날두는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이 골은 결승골이 됐다.



/김민근기자

IOC, 인텔과 2024년까지 후원 계약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반도체 기술 기업 인텔과 손을 잡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부터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IOC는 22일(한국시간) 인텔과 2024년까지 공식 후원사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브라이언 크르제나치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공식 후원사 계약식을 열었다.

바흐 위원장은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인텔과 미래 올림픽을 이끌어갈 데 무척 기대된다"며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에 영감을 준 선수들과 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르제나치 CEO는 "인텔의 혁신적인 기술이 전 세계 팬들의 올림픽 경험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며 "올림픽 패밀리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대 스포츠 무대의 미래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스포츠에 접목된 인텔의 최첨단 기술은 평창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인텔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5세대) 기술을 통해 5G로 인한 정보통신의 변화를 선보인다.

/김민근기자

추신수, 시즌 11호 홈런... 기습번트 안타에 2볼넷까지 4출루 활약

15경기 연속 출루 · 6경기 연속 안타 2할7푼대 타율 회복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1호 홈런과 함께 기습 번트 안타와 볼넷까지 선보이며 4출루 활약을 했다.

추신수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일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펼쳐진 2017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솔로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2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전날 오랜 만에 휴식을 가진 추신수는 3경기 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하는 등 3차례 출루하며 15경기 연속 출루와 6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65에서 0.270(222타수 60안타)로 올랐다.

4월 이후 한 달여 만에 2할7푼대 타율을 회복했다. 홈런 11개, 타점은 34개로 늘었다.

6월 들어 추신수는 전성기 시절의 출루 본능이 되살아나며 18경기 출루율이 무려 0.446을 기록 중이다.

5월 한 달 동안 출루율이 0.352로 부진했

지만 어느덧 시즌 출루율도 0.390까지 크게 올랐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조 바이아니를 상대로 볼넷을 기록하며 15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3회 1사 2루에 주자를 두고 들어선 두 번째 타석에서는 바이아니의 3구째 151km의 빠른 공을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로 연결했다.

시즌 11번째 홈런이자 6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한 추신수는 팀이 3-7로 뒤진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수비의 허를 찌르는 기습 번트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100% 출루행진을 이어갔다.

팀이 5-7로 추격한 6회 2사 2루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9회말 정규아웃 마지막 공격에서는 볼넷으로 다시 한 번 출루하며 4출루 경기를 완성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에도 토론토에 5-7로 패하며 35승 36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다.

/김민근기자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22일(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경기에서 3회 투런 홈런을 터뜨린 뒤 홈을 밟고 있다. 추신수는 이날 경기 솔로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2타점 2볼넷으로 활약했다.

대한축구협회, 전국 순회 스포츠 특강 실시

대한축구협회가 지역 축구협회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스포츠 특강에 나선다.

드림 FA란 이름의 이 특강은 대한축구협회가 17개 시도 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지역협회가 축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대학생의 수강 신청을 받으면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이 업무 전문성을 살려 특강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강의에 나서는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팀장 이하 실무진이다. 스포츠와 관련한 진로를 모색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마케팅, 홍보, 대회 운영, 국제업무 등 국내외 축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질의응답을 통해 축구팬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첫 번째 특강이 열리는 곳은 충청북도다. 충북 축구협회가 마련한 드림 충북FA는 오는 26일 지역 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 있는 KT&G 충북본부에서 진행된다. 인천축구협회와 세종시축구협회도 하반기 중에 드림FA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